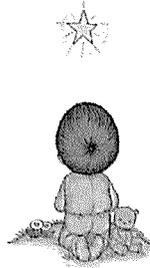


도종환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어둠 속에서 어깨를 떨며 서 있을 때  
 다시는 죄짓지 말라고  
 말없이 다독여주시던 손길을 잊고  
 눈물을 멈출 수 없어 부끄럽게 돌아앉아 있을 때  
 가까이 와 낮은 소리로 일으켜주시던 말씀을 잊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아니다 아니다 하면서 헛된 이름을 팔며  
 보이게 않게 허물을 늘려가는 하루 또 하루  
 지킬 수 없는 말들을 하며  
 욕되게 사는 삶 팔아 양식을 벌고  
 욕되게 쓰는 글 팔아 목숨을 이어가는  
 차마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일까

돌아가자 돌아가자고 두 줄의 시를 쓰다  
 때 물어 궁글며 한 줄의 시를 더 잊어버리는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일까

잠자리를 펴고 누웠다가도 문득문득  
 소스라쳐 눈이 떠지곤 하는 하루 또 하루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그림 말씀▶ 하나님의 달력

하나님의 달력엔 빨간 날이 없습니다.  
 주님은 매일 매시간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겪은 일의 결과가 어떨든 그 일 역시 하나님께서 하신 결과입니다.

교회 목표 하나님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	밀줄치며 읽는 성경! 보혈의 능력 (히4:12-13) <b>갈보리교회</b>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성김과 봉사 *익명성 -명예
제10권 10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8년 3월 9일
☎ 369-5077. Howe St. City(Ak Girls Grammar School Hall) www.calvary.org.nz		

◀하나님! 나의 하나님▶ "혼자 바들바들하며 살아온 내가 불쌍"  
 이어령



최근 기독교에 귀의해 세례를 받은 이어령(73) 전 문화부 장관이 신앙인으로 느낌과 심경을 케이블·위성 채널인 CBS TV에 출연, 고백했다.  
 이 전 장관은 CBS TV의 '영화감독 이장호, 누군가를 만나다'에 나와 기독교인이 된 후 삶의 변화에 대한 질문에 "과거 오류로만 보였던 성경이 지금은 구슬을 꿰듯 새롭게 읽힌다"고 밝혔다.

세례를 받던 순간의 느낌을 묻자 "그동안 누군가에게 몸을 맡겨본 적이 없었다. 얼마나 외로운 삶인가. 혼자 바들바들하면서 여기까지 온 내가 너무 불쌍했다. 가장 사랑하는 내 딸도 얼마나 쓸쓸했을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나는 바울이 아닌 도마이다.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 지식인이다. 그러나 도마도 물에 빠지면 허우적거리고, 철저한 절망의 궁극에 이르면 옹졸한 영성의 소리를 듣게 된다"며 기독교에 귀의한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영성과 천국이 있는 문지방에서 지금까지 전력투구한 삶과 마지막 나를 던지는 처절한 도전 앞에 서 있다"고 덧붙였다.

세례 후 가장 크게 바뀐 게 무엇이라는 질문에는 '토끼와 거북이' 우화를 예로 들며 "세례받기 전까지 나는 토끼 인생이었다. 나는 잘났고,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살았는데 그게 아니다. 나는 거북이다. 그동안 얼마나 잘못 살아왔고 얼마나 많은 것이 부족했었는지... 인간의 오만을 버리는 것이 크리스천으로서 가장 큰 변화"고 말했다.

◀말씀 따라 행하기▶

하나님의 최고의 성품은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시는 것이다

◀인품 따라 행하기▶

자신의 지위가 낮아도  
 인격이 낮은 것은 아니니까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처신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

# 주 일 예 배

(\*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으셔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 하나님 생각 하는 연주 찬양

목도와 참회의 기도 Pray & Confession	Calvary(성가대)	다 같이
*찬 송 Hymn	28장	
*신 앙 고 백 Apostle's Creed	사 도 신 경	
찬 송 Hymn	138장	
기 도 Pray		현석호 집사
성 경 봉 독 Scripture Reading	요한복음 19:1-16	인 도 자
성가대 찬양 Choir		나무십자가 성가대
설 교 Sermon	빌라도의 저주	김성국 목사
찬 송 Hymn	147장	다 같이
헌 금 기 도 Offering Pray		인 도 자
교 회 소 식 Welcome & Announcements		
응 답 송 Response Song	여기에 모인 우리	다 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지난주일 성전건축헌금 \$ 634      총액: \$ 425,647.74

갈보리 성경 100독: 7독(한글) 현석호 집사. 8독(영어) 현석호 집사  
9독(한글) 임병숙 권사 10독(영어) 임병숙 권사

### ◆3월 예배위원◆

### ◆3월 교회력◆

일자	기 도	주차안내	안 내	주 일 & 예 배	모 임
2	최득수	서재오	안내부 & 권사	2	사순절넷째주일 구역예배(7)
9	최재학			9	사순절다섯째
16	현석호	최현철	새교우: 백제성 노은숙	16	종려주일 성금요연합예배(21)
23	고성일	항준직		23	부활주일 구역예배(21)
30	권광순			30	

『2008 신앙생활』 밀줄치며 읽는 성경! 보혈의 능력 1년중 성경 1번 읽기 은혜로운 구절 밀줄치기 갈보리 성경 100독 하기	『교회 등록』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십시오. *여러 교회를 다녀 보십시오. 그래야 신중하고 바른 판단이 됩니다
주일예배: 아동, 학생: 오후 1시    수요예배: 7:30 pm	새벽기도회: 금 5:50    청년부: 수요일 7:00 pm

올 해 교회표어는 “밀줄치며 읽는 성경! 보혈의 능력” 입니다.  
(1)성경 1번 완독하기 (2)은혜로운 구절에 밀줄치기(3)갈보리 성경 100독

- 교우소식  
<이사> 안정실 장로, 김경민 권사 ☎486-5520. 2403 Centinel Apt.  
North Crost St. Takapuna  
<호주로 이주> 박완배, 전미경 성도, 지현, 신혜
- 사순절(Lent) 다섯 번째 주일입니다  
\*십자가로 향하는 시간은 어려움이긴 해도 어두움은 아니었습니다. 갈보리 언덕 거기에는 용서함의 빛이 비쳐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 『갈보리 성경 100독』  
\*여러 교우들께서 완독을 위해 가고 있다는 소식에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교회를 보았습니다.
- 항존직분자 & 건축위원회 모임: Tea Time 후 모임입니다(성가대 연습실)
- 『성전건축을 위한 화요기도모임 3기』 세번째 모임. 11일(화) 저녁 7:30분.  
\*어울려 드리는 기도, 어울려 세워가는 성전입니다
- “고난주간 금식” (예고) <일사> 3월 16일(주일)-22일(토)  
<방법> 고난주간동안 매일 한 끼 금식  
\*금식헌금: 1일 한 끼 금식 어른 \$2, 어린이, 학생 \$1로 모아진 금식헌금은 모두 북한 어린이를 위한 선교비로 사용할 것입니다.  
\*해 뜬 낮에는 40일동안 금식하며 지내는 이슬람의 라마단, 우상을 위해 저리도 자신을 절제하는데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위해 게으르지 않는지요?
- MATE 선교회(박성천 목사) 선교비모금위한 김치냉장고 판매  
\*이왕 구입할 계획있으셨다면 복음의 반국을 위한 선교에 참여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친교실 게시판 참조)
- 금요새벽기도회 <금요일 새벽 5:50분>  
\*매일 새벽에 찬송과 기도소리가 넘치는 우리의 성전 모습을 그려봅니다

◀한 줄로도 긴 생각▶  
시원하게 내리는 소나기,  
하늘은 땅에서 가져간 것을 저렇게 다시 내려 놓는구나.  
김성국